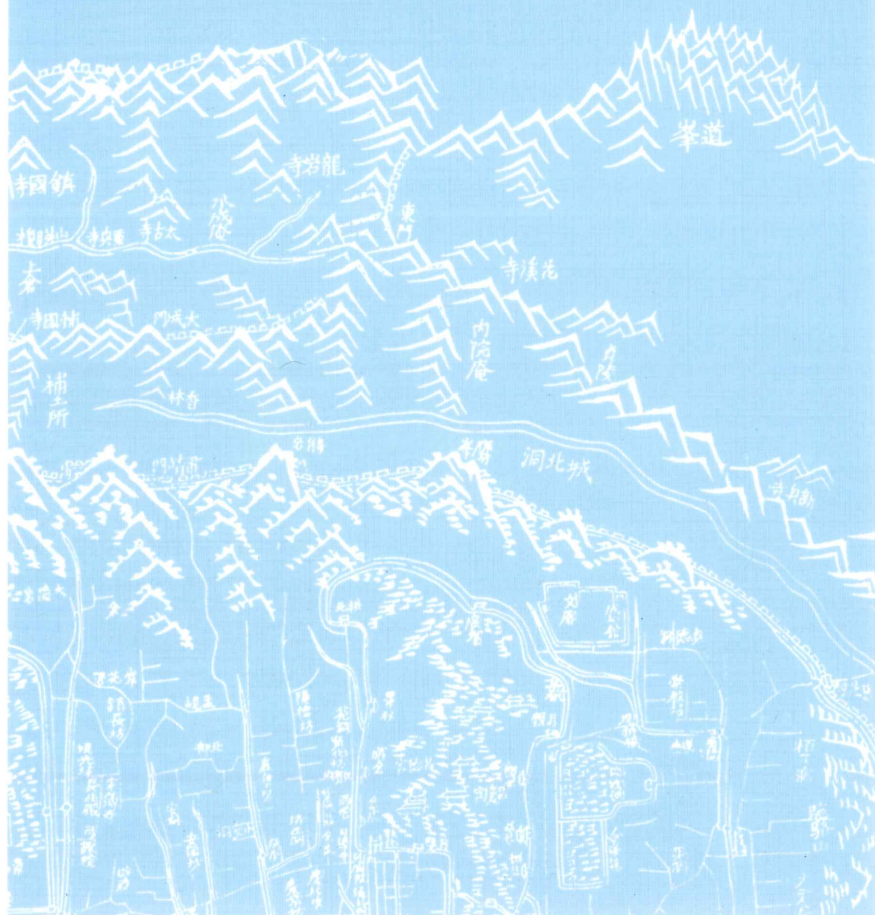


泮橋語文研究

제45집

2017년 4월



泮橋語文研究

제 45 집

泮橋語文學會

2017. 4.

泮橋語文研究 제45집

<책머리에> 5

◆ 일반논문

한국어 말뭉치 구축의 현황

-연세 말뭉치를 중심으로- 김한샘 / 11

중세 국어 언해서 번역 특징에 대한 연구

-『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와의 대비를 통하여- 김문영 / 35

학교 문법에서의 ‘인용’과 ‘인용문’ 이지수 / 73

문학미디어와 고전문학 연구

-영원한 현재로서의 고전문학과 그 연구이론으로서- 임형택 / 91

전략의 기표, 응전의 기의

-김남천 창작방법론의 비평적 성격과 리얼리즘론의 의미 고찰-
..... 김민정 / 123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김명임 / 151

토박이 · 민중 · 댄디 · 교양

-『뿌리깊은 나무』의 미디어적 위상- 전상기 / 181

지식의 ‘민주화’와 ‘문학사회학’의 등장

-김현의 문학사회학과 『뿌리깊은 나무』의 연관성- 한보성 / 213

미국 한국문학 연구의 현단계와 한국현대문학 연구 최현희 / 241

◆ 추천석사학위논문

사자성어와 불완전계열형의 문제	곽유석 / 265
------------------------	-----------

◆ 특별기고

<소개하는 글>	325
----------------	-----

『붉은 여왕』에서 체현된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	류귀창(劉國淸) / 329
---	----------------

취보	355
회칙	357
학회지 편집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360
논문투고규정	364
반교어문학회 연구윤리규정	367
『반교어문연구』 제45집 심사 경위	378

<특별기고>

『붉은 여왕』에서 체현된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

류귀칭(劉國淸) / 번역 : 김병민**

<국문초록>

소설 『붉은 여왕(The Red Queen)』은 예술적으로나 사상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된다. 이 소설의 저자는 수차레나 자신의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표명하고 소설 속에서도 그 뜻을 분명히 드러냄으로, 표면적인 서술에 독자들이 쉽게 속는 경우가 있었다. 이 소설은 조선역사에서의 왕비 - 홍옥련의 유령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동양화된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을 제시하는 책략으로 독자들을 기만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독자들은 이 작품을 접할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과 경계심을 갖고 좀 더 날카롭게 접근해야 한다.

【주제어】 붉은 여왕, 문화적 헤게모니, 오리엔탈리즘

* 편집자 주: 이 글의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劉國淸, 「《紅王妃》中的文化霸權與東方主義」, 『東疆學刊 Dongjiang Journal』, 2013年03期, 分類號: I561.074

이 글은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연구프로젝트인 『당대 영국역사소설의 부흥-20세기 60년대의 영국역사소설연구』(11YJA752009)의 지원을 받았음.

** 저자: 劉國淸,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영국당대문학 전공

역자: 김병민, 산동대 한국학원 석좌교수/전 연변대학 총장

소설 『붉은 여왕』(Margaret Drabble, *The Red Queen*, Mariner Books, 2004/2005)은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거릿 드래블이 2004년에 『왕세자빈 회고록』(한국에서는 『한중록』(恨中錄) 또는 『한중록』(閑中錄)이라고도 한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창작한 동서양 문화를 아우르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작이다. 특히 이 작품은 원작의 창작패턴과 달리 대담한 예술적 혁신을 시도하여 “자서전이나 전기, 소설 등 문학적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은”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¹⁾ 『붉은 여왕』은 고대편, 현대편 그리고 후기 현대편(후속편)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고대편에서는 조선역사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혜경궁 홍씨의 유령을 삼인칭 화자로 설정하여 그녀가 궁중에서의 비참한 인생에 대한 원한을 토로하는 데 대부분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현대편에서는 왕비의 유령이 삼인칭 화자로 등장하며 왕비의 대역으로는 옥스퍼드대 출신의 바버라 할리웰 박사가 등장하여 영국 여류학자의 비극적 혼인과 한국에서의 로맨틱한 경험에 대해 쓰고 있다. 이에 비해 후속편에서는 현대편에서와 같이 왕비의 유령을 삼인칭 화자로 설정하여 보다 열린 결말로 이어간다. 즉 현대편에서의 주인공 바버라 할리웰 박사가 서울에서 만난 네덜란드인 애인인 인류학자 안 반 요스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부인과 함께 중국의 고아인 츠언지엔을 입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설 『붉은 여왕』에서는 서사 구조 설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고대편은 인간세상을 떠난 왕세자빈이 자신이 생활했던 시대의 역사문화와 궁중생활을 회고하는 이야기인데, 고금을 관통하는 서사로서 자신이 살던 시대와 현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논하고 있다. 과거와 현대 그리고 조선과 서양을 교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현대편에서는

1) Frankova, Milada. *The Red Queen: Margret Drabble's (Auto)Biographical Pastiche*. BrnoStudiesinEnglish, 2011(37), p.79

런던에서 서울로의 공간적 이동을 보여준다. 비록 현대편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문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시대의 한국문화를 곁들이고 있다.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어 서양에 동질화된 동양의 현대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동서양 문화의 이질화로 인한 곤혹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령으로 나타난 왕세자빈은 영국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두 주인공의 동양문화에 대한 소통 불가도 문제적이다. 이에 비해 후속편은 비록 편폭이 짧지만 동서양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 융합을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 중국 고아원에서 입양한 여자 아이는 서양의 두 어머니 바베카와 바버라 할리웰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국타향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그녀는 동서양문화의 교류와 융합의 대변인으로 등장한다. 『붉은 여왕』의 고대편과 현대편에서 보여주는 서사가 동서양문화간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후속편에서는 동서양문화의 교류와 융합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원이 체현되어 있다.

한국의 학자 이양옥과의 인터뷰에서 마거렛 드래블은 『붉은 여왕』의 창작의도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문화이해로 문화간 오해의 문제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가 왜 이해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알고 문화 간의 접촉이 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다.”²⁾ 『붉은 여왕』에서는 동서양문화간의 오해와 곤혹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교류와 이해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소설에서 문화 간의 오해와 곤혹을 보여준 목적도 바로 동서양문화간의 교류와 이해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리하여 이 작품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동서양간의 상호 교

2) 李良玉, 「瑪格麗特·德拉布爾訪談錄」, 朱雲譯, 『當代外國文學』, 2009年第3期, pp.161

류와 이해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³⁾

하지만 소설 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평론계의 독해가 여전히 부족함을 필자는 지적하고자 한다. 비록 이 작품에서 영혼에 대한 서사구조가 독창적이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 간 교류가 상호 이해와 문화융합이라는 이념이 매우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독자들 특히 동양의 독자들은 이러한 표면적 서사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과 경계심을 갖고 좀 더 날카롭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영국의 역사소설은 20세기 6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했다. 필자는 『맨부커상과 현시대 영국역사소설』에서 현대 영국의 역사소설의 6가지 특징을 논한 바 있다. 위의 줄고에서 필자는 역사 모티브를 작가의 이념적 배경으로 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하였다.⁴⁾ 『붉은 여왕』의 고대편에서는 왕비 홍옥영이 쓴 『왕세자빈 회고록』에서 서술한 궁중생활을 주요한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티브는 바로 작가가 자신의 이념을 체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가의 의도대로 취사선택을 하여 『왕세자빈 회고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보태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원래의 내용을 뒤엎기도 했다. 작가가 『붉은 여왕』의 서문에서 말하듯이 왕세자빈은 “왕세자빈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혼합체로 그 존재는 나이

3) 王桃花, 「論『紅王妃』中的異文化書寫及其“理解”主題」, 『當代外國文學』, 2012年第1期, p.65.

4) 劉國清, 「曼布克獎與當今英國曆史小說熱」, 『外國文學動態』, 2011年第6期, pp.48-49.

기도 하고 할리웰 박사이기도 하며 회고록을 번역한 여러 역자와 평론가들이기도 하다.”⁵⁾ 이로써 『붉은 여왕』에서의 왕비에게는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왕세자빈은 서양화된 동양 영혼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 서양화된 특성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드래블이 묘사한 왕세자빈은 저 세상으로 떠난 2백여 년간 서양의 고서를 통독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볼테르를 알고 있었고 프로이드와 칼 융의 이론을 숙지했으며 현대 학술용어를 사용하였고 전생애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여 현재의 시각으로 생전에 겪었던 일들을 논했으며 심지어는 현 시대의 교육과 여성들의 지위, 생명윤리와 학술윤리 등의 문제에 대한 사유의 궤적도 드러내고 있다. 왕세자빈의 고금을 막론한, 동서양문화에 대한 평가는 『왕세자빈 회고록』에서의 왕비와 비할 바가 아니다. 비록 소설의 『서문』에서도 드래블은 “할리웰 박사처럼 나도 사람이 죽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에 회의론을 갖는다.”⁶⁾고 언급한 바 있고, 소설 속에서 왕비 역시 다시 회생하여 영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지만 작가는 결국 왕세자빈의 유령을 서술자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술 기법에 대해 드래블은 인터뷰에서 “현 시대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유령으로 나타난 왕세자빈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⁷⁾고 솔직하게 표명한 바 있다.

평론계에서도 『붉은 여왕』의 귀혼서사에 대해 주목을 하며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사담론에서 상용패턴을 타파하고 화자의 시공간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관찰력과 서술에서의 자유로움을 보여주었고”, “소설가로서의 독특한 서구적인 특권으로 현재와 과거, 현실과 역사,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대와

5)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序3.

6)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序2.

7) Jays, David. *Seoul Destroying*. The Observer, August 22, 2004.

지역 그리고 문화 및 역사와의 폭 넓은 소통을 시도하였다”, “특유의 시공간적 초월은 인간 본연의 실마리를 찾게 했고 작품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렸으며 작자의 인문적인 감성을 표현했다는 것이다.⁸⁾ 귀혼이라는 서술방식은 이 작품에서 거대한 서술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모험적인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드래블은 혜경궁 홍씨에게 너무나 많은 목소리를 부여했다. 왕세자빈으로서의 생전 혜경궁 홍씨의 목소리, 2백 여 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유령으로 나타난 왕세자빈의 목소리, 홍씨의 대변자로 형상화된 바버라 할리웰 박사의 목소리, 그리고 『한중록』을 번역한 여러 번역가들의 목소리와 서양 문학평론가들의 복합적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붉은 여왕』이 서양의 문화적 패권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작품 또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착안해 낼 수 있었다.

작가는 『붉은 여왕』에서 홍씨의 목소리를 빌어 여러 차례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소설의 머리글에서나 인터뷰에서 드래블 자신도 여러 번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작가 혹은 작품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을 표명하고 문화평등주의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자들은 『붉은 여왕』의 화려한 문화상대주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서양의 문화패권 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패권 속에서 살아나는 오리엔탈리즘을 작품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2.

글로벌 시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대화는

8) 程倩, 「曆史還魂, 時代回眸—析德拉布爾『紅王妃』的跨時空敘事」, 『外國文學』, 2010年 第6期, p.54.

현대 세계문화 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동서양문화는 진정한 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강약으로 나누어 질 뿐이다. 서양문화에 비해 동양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약세에 있었고 서양의 학자들도 자신의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문화적 우월감으로 동양문화를 대하고 있고 서양문화의 기준에서 동양문화를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화패권주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동양학자들마저도 강한 서양문화의 공세로 자신의 민족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문화를 폄하하거나 깔보는 경향이 있어 서양의 문화패권주의의 공범자가 되기도 한다.

현대가 문화상대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서양의 문화패권 사상은 늘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화패권주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양문화에 대한 찬양과 동양문화에 대한 폄하와 혐오 그리고 동양문화에 대한 서양화가 그것이다.

『붉은 여왕』에서 서술자는 평범한 동양인이 아니라 죽은 지 2백 여 년 동안 동서양문화를 꿰뚫고 있는 혜경궁 홍씨의 유령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미 서양화된 동양의 귀혼이며, 혜경궁 홍씨는 여기서 이미 서양문화의 대변인으로 등장한다. 이 대변인은 서양의 시각으로 한국역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에 대해서도 서양의 문화패권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붉은 여왕』의 고대편에서는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그 시기 역사에 대한 드래블의 작가적 상상력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붉은 여왕』에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하지만 드래블은 이러한 왜곡은 일부 이야기 소재에 대한 왜곡이며 어떤 소재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왜곡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로 서술했다고 주장했다.⁹⁾

소설의 고대편에서 작자는 왕세자빈이 고양이를 기르는 플롯을 설정하

고 까치의 빈번한 출현으로 생긴 액운을 없애려는 이야기를 설정하고 있다. 드래블은 『붉은 여왕』의 서문에서도 이 부분의 서사구성을 논했다. “소설에서 홍씨가 고양이를 기르는 이야기 구성은 사실과 맞지 않고” “심지어 한국역사에서 까치가 길상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액운을 상징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¹⁰⁾

중국이나 조선의 궁중에서는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전례가 거의 없으며 많은 고양이를 길렀다는 무측천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현대에서는 많은 서양인들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고 일부 중국인이나 한국인들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지만 홍씨가 고양이를 길렀다는 역사적 단서는 부족하다. 비록 고양이와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서양문화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18세기에 살았던 홍씨가 고양이를 기르는 설정은 18세기 동양문화를 서양문화의 일부분에 포섭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작가가 혜경궁 홍씨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서양 독자들과의 거리감을 없애려고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까치를 액운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 또한 깊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다.

서양문화에서 까치는 액운을 상징하지만 중국과 한국문화에서는 회소식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드래블은 “중국과 한국에서 까치를 행운과 회사의 상징으로 일컫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불운 즉 재수없음으로 상징되어 있다.”¹¹⁾고 말한 적이 있다. 『한중록』에서 사도세자가 죽기 전 나타난 갈까마귀가 『붉은 여왕』에서는 까치로 등장했으며 이로써 잇따라 나타날 재난을 예고하였다. 비록 드래블이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종족주의 혹은 문화도용주의자”¹²⁾란 타이틀에 휩싸일까봐 조심

9) 李良玉, 「瑪格麗特·德拉布爾訪談錄」, 朱雲譯, 『當代外國文學』, 2009年 第3期, p.158.

10)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序3.

11)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序3.

12) 李良玉, 「瑪格麗特·德拉布爾訪談錄」, 朱雲譯, 『當代外國文學』, 2009年 第3期, p.162.

스럽게 다루었다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드래블은 영국인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지만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그다지 많지 않다¹³⁾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붉은 여왕』 고대편에 드러나는 동물에 대한 이러한 치환법은 한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다는 드래블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즉 까치로써 갈까마귀를 대체한 것은 동양문화에 대한 무시와 동양문화를 서양문화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붉은 여왕』 고대편에서는 한국문화에서 길상의 상징인 까치를 서양화된 액운의 불상조로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붉은 색의 문화 상징적 의미마저 왜곡시켰다. 한국에서 붉은 색은 행운과 경사를 의미하지만 홍씨의 유령은 오히려 자신이 빨간 치마를 좋아해서 생활에 불행과 고난이 따른다고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타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뒤집고 이문화한 행위는 작가의 문화 패권 책략의 변이로 보이는데, 다만 소설 안에서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서양문화패권주의는 『붉은 여왕』의 고대편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현대편과 후속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대편에서 작가는 혜경궁 홍씨의 말을 빌어 한국의 숭문화를 비판하고 있으며 현대편에서는 홍씨의 대변인으로 형상화된 바버라 할리웰 박사가 서울에서 만난 애인 안을 통해 중국의 초대문화와 선물문화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지닌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선입견에서 산생된 오만과 멸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또한 서방문화패권주의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드래블은 『붉은 여왕』은 이문화간의 평등과 교류와 문화의 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작품이라며 소설의 마지막 편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시도만으로는

13) 李良玉, 「瑪格麗特·德拉布爾訪談錄」, 朱雲譯, 『當代外國文學』, 2009年 第3期, p.155.

성공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마지막 후속편의 기획에서도 서양의 문화패권주의 사상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후속편에서는 바버라가 서울에서 만난 애인 안의 아내 바베카와 함께 입양한 중국의 여자아이 츠엔 지엔이 신분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대목이 나온다. 츠엔지엔은 비록 중국의 혈통을 가졌지만 두 살 때 이미 유럽으로 갔기에 모국문화에 대한 인상이 거의 없으며 서양문화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인물이다. 비록 황인종이긴 해도 완전히 서양화되어 그녀에게서 동서양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작가가 창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라는 목적에 작품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¹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은 동양문화에 대한 모욕이며 동양 문화를 없애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츠엔지엔은 동양문화를 없애기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동양문화를 철저히 수용한 서양문화 즉 서양문화패권주의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3.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은 마치 쌍둥이와 같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미화시키고 보급시키려는 야망을 갖고 있으며 동양문화를 헐뜯거나 폄하하여 동양문화를 완전 서양화시키려는 문화패권주의 사상도 갖고 있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족 간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동양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요괴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여 작품 속에서 야만적이고 흉악하며 사악하고 어리석고 낙후하며 추하고 기

14) Eder, Richard. *The Red Queen: Babs Channels Lady Hyegyong*. New York Times. 10 Oct 2004. 『http://www.nytimes.com/2004/10/10/books/review/10EDERL.html?_r=1&oref=login』

이하고 미신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동양의 기호로 부호화되었다. 이러한 기호는 바로 서양인들이 강제적으로 부각시킨 동양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인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이러한 행위는 환심을 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양인들은 전통적인 동양문화에 대해 인식을 바꿔 새로운 신동양주의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신동양주의와 전통적인 동양주의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이 없으며 전통적인 동양주의의 변종으로 형식만 바꿨을 뿐 은폐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전통적인 동양주의는 동양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발화의 주체로서 동양인은 배제되어 있고 담론의 대상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동양주의는 책략을 바꿔 “관용의 태도로 제3세계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본토의 자료제공자의 신분으로 발화를 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담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서양 주류문화는 동양학자들을 격려하여 “자신들의 신분으로 동양주의의 정확성을 입증하게 하여 주류문화의 중심 위치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양의 학자들은 오히려 동양에 대한 부정과 폄하로 서양문화권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신동양주의는 동양에서 온 맹군을 끌어들였고 전통적인 동양주의의 의식구조 속에서 진정한 동양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¹⁵⁾

비록 『붉은 여왕』의 고대편은 『왕세자빈의 회고록』을 토대로 씌어졌지만 작가는 자신의 상상을 발휘하여 인물을 각색하였는 바,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물 형상이 아닌, 부정적이고 기괴한 형상을 가미하여 『붉은 여왕』으로 하여금 오리엔탈리즘의 색채를 띠게 했다. 예컨대 서술자인 왕세자빈의 유령은 동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은 서양화된 영혼의 특질을 지닌다. 서양화된 영혼은 표면은 전통적인 동양주의의 구조

15) 應雁, 「新東方主義中的“眞實”聲音 - 論哈金的作品」, 『外國文學評論』, 2004年 第1期, p.32.

를 띠고 있지만 이는 바로 약간 변형된 신동양주의 표현방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왕세자빈의 유령은 전통적인 동양주의와 신동양주의 특질을 겸비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묘한 형식은 아주 잘 은폐되어 있어, 이 작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왕세자빈 회고록』은 1795년, 1801년, 1802년과 1805년 4차례에 걸쳐 완성된 회고록으로 구성되었다. 앞의 세 부분은 왕세자빈의 궁중에서의 고독하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서술했으며 그 당시 정치세력들간의 권력다툼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제4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임오화변”이 일어나게 된 전후 사연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회고록에서 왕세자빈이 혈서를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심한 우울증에 걸린 남편 사도세자가 수차례 큰 화변을 일으켜 조선왕조의 생사존망에 위협을 느끼게 하여 영조가 부득불 사도세자를 죽이게 하였기 때문이다.¹⁶⁾ 『왕세자빈의 회고록』에서 왕세자빈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영조에 대해 그 어떠한 원망과 질책도 하지 않는다. 조선의 역사에서 영조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영명하고 지혜로운 국왕이다. 하지만 『붉은 여왕』에서 영조는 이성을 잃은 국왕으로 등장한다. 그는 “폭력적이고 변덕이 많고 어떤 때는 자신을 억제하지만 어떤 때는 제멋대로였다.”¹⁷⁾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자기가 싫어하는 가족들이 말을 걸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귀를 찢어댔고 양치질을 해댔다.”¹⁸⁾ 심각한 천식으로 고생했으며 신경질적이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늘 더러운 물을 벽 하나 사이에 둔 딸 화협옹주가 거처하고 있는 마당에 뿌리려 했지만 담장이 너무 높아 그 물이 다시 자기 몸에 뿌려지게

16) 『揭秘壬午禍變－思悼世子的死亡之謎』, <http://wenku.baidu.com/view/a5d5fa7002768e9951e738de.html>

17)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p.45.

18)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p.55.

되었다는 것이다. 영조에게 또 한 가지 강박증은 바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다. 영조는 미신을 믿어 죽을 “사(死)”와 돌아갈 “회(回)”자를 싫어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자기가 직접 가져오는 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였다. 이처럼 영조는 미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하고 잔인하기까지 하였다. 영조는 늘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는데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연루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처럼 『붉은 여왕』에서의 영조는 모질고 엄숙한 아버지, 잔인하고 무정한 인간으로 등장한다. 조선의 역사에서 영조가 부득이 하게 아들 세도세자를 죽인 사건에 대해, 『붉은 여왕』에서는 왕세자빈의 유령이 규탄하고 성토했다는 대상으로 영조를 부각시켰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게 된 사유를 작지는 고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허구화시켜 이런 비극에 포인트를 주어 아버지로서의 영조의 잔인함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 지도자 즉 국왕과 군주를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은 바로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동양화시킬 때 사용한 가장 유력한 기법이며 또한 이러한 동양을 배경으로 한 서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동양문화의 인식에 있어 그들 나름의 최선의 극적인 표현이었다.

『붉은 여왕』에서는 영조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사실과 무관하게 궁정에서의 불륜 스캔들을 허구로 꾸며내고 있다. 예컨대 영조가 제일 사랑하는 딸 화완옹주와 친오빠인 사도세자와의 불륜을 설정하고 친고모와 조카사이의 세대를 초월한 불륜 스캔들을 설정하고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친오빠와 불륜을 벌인 화완옹주는 윤리를 무시하고 세손으로 내세운 친조카와도 불륜을 저지른다. “고모인 화완옹주는 갓 시춘기에 들어선 세손을 유혹했다. 그녀는 욕심이 많았으며 세손이 읽는 책에도 질투하였다고 한다.”¹⁹⁾ 이 소설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화완옹주가 세손빈을 질투하였다는 것인데, 세손빈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그것

이다.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친척지간의 불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은 아주 드물다. 하물며 왕궁에서 이러한 불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드래블이 조선의 왕세자와 공주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 또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붉은 여왕』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미학적인 측면과 주제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은 작품의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아 독자들은 이를 의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작가가 인터뷰에서도 문화상대주의란 이름을 내걸고 작품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왕세자빈의 유령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동양화된 모습을 보여준 기법은 은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표면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등 작가의 저의를 가볍게 보고 비판적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19) 瑪格麗特·德拉布爾, 『紅王妃』, 楊榮鑫譯,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2007年, p.105.

《红王妃》中的文化霸权与东方主义^{*}

刘国清^{**}

〈摘要〉

无论在艺术性上还是在思想性上,小说《红王妃》都获得了很高的赞誉。不过,在赞誉的光环之下,其深层次隐含的文化霸权和东方主义却不容忽视。由于作者在不同场合多次声明自己奉行文化相对主义的立场,并且小说中也不时地加以昭示,人们容易被蒙蔽,而作者选择朝鲜历史上的王妃洪玉英的亡灵作为叙述者,使得来自我东方化的新东方主义策略更具欺骗性,因而读者对此类作品更应提高警惕,不可失却批判的声音。

[关键词] 《红王妃》; 文化霸权; 东方主义

英国当代著名小说家玛格丽特·德拉布尔在2004年创作的《红王妃》是作者在读完《王妃回忆录》(韩国称为《恨中录》,亦称《闲中录》)受到强烈震撼而创作的一部跨时代、跨地域与跨文化力作。因《红王妃》在体裁上一别作者原有的模式,大胆地进行艺术创新,“跨越了自传、传记和小说的文类界限”[1]79而获得很高赞誉。《红王妃》分为古代篇、现代篇和后现代篇。古代篇讲述了在朝鲜历史上家喻户晓并颇受尊崇的献敬王妃洪玉英,在朝鲜民间称为“洪夫人”的宫廷生活和悲剧人

^{*} 文献出处: 东疆学刊 Dongjiang Journal, 2013年03期 分类号: I561.074

教育部人文社会科学研究规划基金项目《当代英国历史小说复兴—20世纪60年代以来英国历史小说研究》,项目编号: 11YJA752009。

^{**} 文学博士, 东北师范大学外国语学院教授, 博士生导师, 研究方向为英国当代文学。

生,由王妃离世二百余年的阴魂以第一人称向世人倾诉。现代篇是王妃的亡灵以第三人称讲述她选中的替身,一位叫芭芭拉·霍利威尔的英国当代女学者的悲剧性婚姻和在韩国的一段浪漫经历。后现代篇沿用现代篇使用的王妃亡灵以第三人称叙事,该篇采用开放性的结尾,讲述现代篇中的主人公芭芭拉·霍利威尔为完成在首尔邂逅的荷兰情人,人类学家占·范乔斯特的遗愿,与占的遗孀维维卡一起培养一个领养的中国孤儿陈建依的故事。

从《红王妃》的结构设计上来看,德拉布尔可谓是煞费苦心。古代篇主体上是离开人世的红王妃对自己生活时代的历史文化与宫廷生活所做的回顾,而且通过不时地以一种穿透古今的鬼魂叙事对在世时发生的事件和当今发生的事件进行评点,从而将过去与现在,朝鲜与西方巧妙地连接起来。现代篇则实现了从伦敦到首尔在空间上的移转。虽然该篇主体上在展示以英国为代表的西方文化,但也不时地加入全球化时代的韩国文化,甚至还有中国文化,既有东方社会与西方社会同质化的现代文化,也有东西方对彼此文化的不解与困惑,包括已在另一个世界的红王妃对英国文化的不解和本篇中两位主人公对东方文化的困惑。后现代篇虽然很短,但无疑是对实现东西方文化的相互理解,交流融合所做的一次尝试。从中国孤儿院领养的中国小女孩陈建依在两位西方妈妈维维卡和芭芭拉的共同呵护下正在异国他乡健康成长,她身上肩负着东西方文化沟通与融合的重任。从表层上看,《红王妃》的古代篇和现代篇展示东西方文化不同之处恰恰是为了增进彼此间的了解,而后现代篇承载着作者实现东西方文化的沟通与融合的美好愿望。在接受韩国学者李良玉采访时,玛格丽特·德拉布尔道出了《红王妃》的创作意图:“我想谈的是文化理解与误解问题”,“我们生存在文化相对主义时代,彼此理解是非常重要的”,“我们生活的世界需要彼此理解,至少我们要知道为什么不能彼此理解对方。这就要求我们跨越文化并且明白文化之间有

接触的可能, 这就是小说所要表达的内容。”[2]161-162 《红王妃》中既有东西方文化间的误解与困惑, 也有彼此间的沟通与理解。显然, 作者在小说中写文化上的误解与困惑的目的就是为了凸显东西方文化间沟通与理解的重要性。于是, 《红王妃》便被认为是具有全球视野, “代表东西方之间相互沟通相互理解的未来与希望”。[3]65遗憾的是, 评论界对于小说中隐于表层之下的文化霸权和东方主义却缺少认识。不管《红王妃》的鬼魂叙事多么别有创意, 也不管作者想传达的全球化时代跨文化交流并达到相互理解和文化融合这一理念又多么的诱人, 对于读者, 尤其是东方读者, 不要輕易被这些表面现象所蒙蔽, 对于隐于文本中的文化霸权和东方主义需要细心挖掘并保持清醒与警惕, 绝不可忽视, 更不应视而不见。

—

上世纪60年代英国历史小说开始复兴, 至今繁盛不衰。笔者在《曼布克奖与当今英国历史小说热》一文中指出了当代英国历史小说的六大特征, 而将历史素材作为展示作者理念的平台是其中最重要的特征之一。[4]48-49虽然《红王妃》的古代篇以献敬王妃洪玉英所著的《王妃回忆录》中所述的宫廷生活为主要素材, 但这些素材是作者用来展示自己理念的, 作者有自己的取舍, 而且作者还加入了很多《王妃回忆录》不曾有的内容, 甚至在某些方面颠覆了原有的记述。正如作者在《红王妃》的《序》中所言, 红王妃的声音“已不仅仅属于她一个人, 它已成为一个混合体, 其中包含了我的‘声音’, 霍利威尔博士的‘声音’, 当然, 还有回忆录各位译者及评论者的‘声音’”。[5]序3于是, 《红王妃》中的王妃在思想上已经是既有东方的元素, 也有西方的元素, 确切地说, 红王妃已是一个高度西方化了的以东方阴魂的身份来叙事的叙述者。之所以

如此, 不仅仅是因为小说中的红王妃声音已被嵌入了众多西方人的声音, 还在于在德拉布尔笔下的这位王妃在离世二百余年的时间里不仅已饱读西方典籍, 而且还了解甚至洞悉当今的西方社会。这位王妃不仅了解伏尔泰, 熟知弗洛伊德和荣格的思想, 还善于使用当代学术术语, 既能回顾前生, 又能站在当今的时代高度对生前历经之事予以置评, 甚至不时地加入自己对当今的教育、女性地位、生命伦理、学术伦理等问题的思考, 既能谈古论今, 又能对东西文化加以比照并品头评足, 绝非《王妃回忆录》中的王妃可比。虽然在小说的《序》中德拉布尔本人曾言, “跟霍利威尔博士一样, 我也不相信人死后还有灵魂存在。”[5]序2而且在《红王妃》这部小说中, 连红王妃本人也数次否认死后灵魂的存在, 但德拉布尔还是选用红王妃的亡灵作为叙述者。德拉布尔在接受采访时坦承了这种叙事的妙处, “通过让她在死后去评论, 我便可以此探讨当今世界存在的问题。”[6]

评论界对《红王妃》采用的鬼魂叙事给予了很高的评价: “在叙述话语上超越了常规叙事的固定模式, 打破了叙事主体的时空局限”, “拥有了宏阔的观察视野和充分的叙述自由”, “充分行使小说家独享的虚构特权, 在今生与往世、现实与历史、西方与东方之间, 实施了多重时空跨越, 进行跨越时代、地域和文化的历史对话和精神交流”, “独特的跨时空叙事在个体生命的叙说中抽绎出人类共有的心理本原, 增添了作品的历史底蕴, 体现了作者的人文情怀”。[7]54采用鬼魂叙事确实给《红王妃》带来了巨大的叙事空间, 但同时也给小说带来了风险。作为亡灵的王妃被赋予了太多的声音, 既有生前自己的声音, 也有死后历经二百年所见所学而高度西化了的亡后的声音, 加上红王妃的替身, 英国的女学者霍利威尔博士的声音, 英国数位《王妃回忆录》译者的声音和西方评论者的声音, 这么多的西方声音, 《红王妃》很难彻底革除西方文化霸权意识, 也难免有东方主义的色彩。

在《红王妃》中作者借王妃之口数次提及文化相对主义,而且在小说的《序》中,以及在接受采访中德拉布尔也数次谈到文化相对主义,这一切似乎都在昭示作者,也在昭示作品所持的是一种文化相对主义,或者说是文化平等主义的立场。但如果细心观察,读者还是可以在《红王妃》亮丽的文化相对主义的旗帜下闪动着西方文化霸权思想的鬼影。不仅如此,与西方文化霸权相伴而生的东方主义在小说中也有相当量的分布。

二.

在全球化的今天,东西方文化交流日益频繁,相互尊重与平等对话符合时代潮流,是当今世界文化交流的主旋律。但应注意的是,由于历史的原因,事实上在当今世界东西文化并未实现真正意义上的平等,而是存在着强弱之分。相较于西方文化,东方文化长期以来一直处于弱势地位。虽然许多西方学者认为自己是文化相对主义的支持者,但常有文化上的优越感,在对待东方文化态度上习惯于用西方文化作为标尺来衡量东方文化,表现出文化霸权主义的一面。不仅如此,一些东方学者在强大的西方文化攻势面前丧失自己的民族文化立场,盲目认同西方文化,甚至矮化、丑化自己的民族文化,客观上成了西方文化霸权的帮凶。

虽然当今是崇尚文化相对主义的时代,但西方的文化霸权却几乎无处不在,这种文化霸权主要体现在对西方文化的高扬与彰显和对东方文化的贬抑与消音,以及使东方的文化西方化上。《红王妃》中的叙述者不是一般意义上的东方人,而是离世二百余年对东西方有了深入了解并对西方文化有着高度认同的红王妃亡灵,确切地说,叙述者已是高度西方化了的东方亡灵,在很大程度上红王妃亡灵成了西方文化的代言者,这

位代言者以西方的视角不仅俯视在韩国历史上发生的悲剧性事件，而且探及当今的世界，作品中不时地闪烁着西方文化霸权主义的身影。

《红王妃》的古代篇大量借用献敬王妃洪玉英所著的《王妃回忆录》中的材料，但德拉布尔也加入了不少自己对这段历史的想象成分。她曾坦言，《红王妃》有很多与历史记载不符的地方：“不过我有所欺瞒，我是指某种程度上对素材的期瞒，因为有些素材是找不到的。”“当然，我承认那完全是我的理解。”[2]158在古代篇中，作者不仅特意设计了红王妃养宠物猫的情节，而且频繁出现喜鹊来昭示厄运。德拉布尔在《红王妃》序中承认了它们的虚构性：“我在小说里设计了王妃养宠物猫的情节，不知是否符合史实”，“我甚至也不清楚喜鹊(它在小说中频繁出现)在当时的朝鲜到底是象征吉祥还是象征厄运。”[5]序3

无论在中国的宫廷，还是在朝鲜的宫廷，猫很少作为宠物来养，武则天是例外，据说她在宫廷养了很多猫。很多西方人现在把猫作为宠物养，现在一些东方人，包括中国人、韩国人也喜欢养宠物猫，但当时的红王妃是否养过猫却缺少证据。对猫和狗的宠爱已成为当代西方文化的一部分，作为18世纪东方人的红王妃如此爱猫，有了与当代西方文化的契合点。如果说作者设计红王妃养宠物猫的情节是为了讨好西方的读者，拉近与读者间的距离，喜鹊作为厄运的象征则值得深思。

在西方文化中喜鹊昭示厄运，而在中国和朝鲜文化中则代表喜事将临，德拉布尔对此十分清楚：“通常的说法是，在中国和朝鲜，人们认为喜鹊给人带来喜讯，而西方人则相信，见到喜鹊就会倒霉。”[5]序3在《王妃回忆录》中思悼世子被逼去死前出现的是渡鸦，德拉布尔却故意在《红王妃》古代篇中将其置换为喜鹊，而且频繁使用它预示接二连三的厄运。虽然德拉布尔宣称自己力避文化偏见，小心谨慎以防被认为是“种族主义者或者文化盗用主义者”，[2]162但她的这一置换难免令人生疑。德拉布尔承认在英国人们对日本和中国有很多成见和偏见，而对韩国谈论不

多, 似乎没什么成见和偏见[2]155, 但《红王妃》古代篇中的这种置换无法叫人相信作者对韩国文化没有丝毫的成见和偏见。《红王妃》古代篇中用喜鹊来置换《王妃回忆录》中的渡鸦客观上起到了对东方文化消音的作用, 产生了使东方文化西方化的效果。

《红王妃》的古代篇不仅将在韩国文化中代表吉祥的喜鹊西方化为预示厄运的不祥鸟, 而且也颠覆了红色在韩国原有的文化寓意。在韩国红色代表喜庆吉祥, 但王妃的亡灵一再抱怨是因为自己喜欢红裙子才遭受生活的不幸与苦难, 作者这种对异文化寓意进行的颠覆其实是一种去异文化的行为, 是一种变相的文化霸权策略, 只不过比较隐蔽而已。

西方文化霸权的身影不仅存在于《红王妃》古代篇, 而且还出现在现代篇和后现代篇中。在古代篇中, 德拉布尔借红王妃之口批评韩国源远流长的酒文化, 在现代篇她则借红王妃的替身芭芭拉在首尔结交的新情人占·范乔斯特所谓的在中国的經歷抨击中国的宴请文化和送礼文化, 这种不分青红皂白的批评清楚地表明了西方的某些人士对异文化所采取的先入为主的傲慢与轻视态度, 这同样是西方文化霸权的表现形式。

德拉布尔一再申明《红王妃》旨在实现跨文化间的平等交流与文化融合, 其后现代篇无疑是作者为实现这一愿望所做的一次尝试, 但遗憾的是, 不仅这种尝试是否成功难以预测, 而且作者在此篇的设计上明显存在着西方文化霸权思想的痕迹。被芭芭拉在首尔认识的情人占·范乔斯特的遗孀维维卡和芭芭拉共同抚养的中国女孩陈建依未来很可能难以摆脱身份的尴尬。陈建依虽然有着中国的血统, 但她在只有两岁时就被带到了欧洲, 有多少的母国文化尚存在她身上? 只有两岁的陈建依不会负载多少中国文化, 在纯西方文化的氛围中, 从文化角度讲她只能成为彻头彻尾的西方人, 别无选择。未来的她只能成为外黄内白的香蕉人, 一个有着东方面孔黄皮肤但骨子里却西方化了了的夹心人。没有了东方文化, 又何谈与西方文化的交流与融合? 难怪有学者提出质疑, 认为作者

的写作意图并没有实现。[8]不仅如此,这种设计本身就是一种湮灭东方文化,去东方文化的操作。陈建依成了一个湮灭东方文化,去东方文化最后只能彻底西方化的符号性人物,而湮灭东方文化,去东方文化并彻底西方化是西方文化霸权的终极目标之一。

三.

西方文化霸权与东方主义是一对孪生姐妹。西方通过对自己文化的美化和普世化来压制东方文化,甚至贬损丑化东方文化,从而吞噬、同化东方文化来达到传播西方文化,将东方西方化的文化霸权目的。为了实现西方文化霸权,东方主义不惜冒种族主义的风险对东方民族加以丑化,甚至妖魔化。于是,野蛮、凶残、邪恶、愚昧、落后、丑陋、奇异、怪诞、迷信、病态和非理性的东方就成了东方的标签。由于这样的标签是西方强加给东方的,不仅遭到东方的强烈反对,而且与当今提倡多元文化并存的全球化时代相悖而不得人心,传统的东方主义便进行了改头换面,一种新东方主义应运而生。但这种东方主义与传统的东方主义并没有本质上的差别,它是传统东方主义的变种,只不过因手段翻新而更具隐蔽性和欺骗性而已。

传统的东方主义是西方对东方的俯视,是西方的自说自话,而东方作为他者是完全失语的,是不在场的被言说对象。新东方主义则调整了策略,“不再是西方的自说自话,它以一种貌似宽容的姿态让第三世界的知识分子以第三世界本土资料提供者的身份踊跃发言,并让他们在其话语中心占据一定的位置。”西方主流文化鼓励来自于东方的学者“以本土证人身份证明东方主义的正确性,巩固主流文化的中心地位和西方对东方的话语霸权。”而东方学者则通过对东方的矮化和丑化实现自我

东方化来跻身西方的话语场, 获得话语权。这样一来, “新东方主义收编了来自东方的盟军, 在老式的东方主义的认知框架内纳入了听似真实的自我东方化话语。”[9]32

虽然《红王妃》的古代篇主要取材于《王妃回忆录》, 但德拉布尔不仅加进了历史相像的成分, 而且还对一些人物形象进行了颠覆, 因这种颠覆是丑化与妖魔化东方人, 《红王妃》有着东方主义的色彩。不过, 由于红王妃的亡灵作为叙述者是个混合体, 她有着东方的躯壳, 披着东方的外衣, 但在骨子里却已是对西方高度认同而西化了的鬼魂。正因为这位叙述者混杂着众多西方人的声音, 其东方主义的成分是传统的东方主义式的, 而其东方的躯壳与外衣则使其表现出的东方主义色彩是新东方主义式的。也就是说, 这位亡灵叙述者兼具传统东方主义和新东方主义的特质, 或者确切地说, 是在新东方主义外衣的遮盖下行传统东方主义之实的, 正因为这种形式极为隐蔽而颇具欺骗性人们才一直未对《红王妃》中的东方主义予以足够关注。

《王妃回忆录》由1795, 1801, 1802和1805年分别完成的四部回忆录组成。前三部回忆录记述了王妃在宫中孤寂枯燥的生活, 也对当时的政治有所针砭并为屈死的家人伸冤。第四部最为重要, 它比较完整地记述了“壬午祸变”的前因后果, 极具可信性。在回忆录中王妃立下血誓, 是因为身患严重抑郁症的丈夫思悼世子屡闯大祸, 威胁到了朝鲜王朝的存亡, 无奈之下英祖国王才将其赐死。[10]在《王妃回忆录》中王妃对自己的公公英祖国王并没有怨言与指责。在朝鲜的历史上英祖是一位以仁德治国, 英明睿智的国王。但在《红王妃》中, 英祖成了一位缺少理性的国王, 他“性格暴躁、反复无常, 时而自我克制, 时而又放任自流。”[5]45 他的行为非常怪异: “但凡跟家里哪个他不喜欢的人讲过话, 他就会没完没了地洗耳朵、漱口”。[5]55德拉布尔笔下的这位患了严重哮喘而又神经质的国王更令人奇怪的是, 他总是试图把脏水泼到仅一墙之隔的女

儿和协翁主院里,但因为院墙太高泼不进去搞得自己满身溅上脏水。国王还有一种强迫症,他忍不住常常换衣服。国王还非常迷信,十分忌讳“死”和“回去”两个字,忘了带东西,不管多么重要,不仅自己不回去取,也不准随从回去取。国王不仅怪异迷信,而且还非常凶狠残忍。英祖一直为杀兄篡位的传闻所扰,为了平息传闻,他不惜大开杀戒,株连万千。德拉布尔笔下的英祖不仅为王不仁,而且为父不慈,甚至残忍无情。在朝鲜历史上英祖国王大义灭子这一迫不得已的行为却成了《红王妃》中王妃亡灵对英祖国王不断声讨谴责的对象。对于思悼世子被幽米柜而死的缘由,作者或不愿对此加以考证,或可能虽有所了解却故意弃之不用,竟妄自杜撰各种原因,津津乐道于以浓重的笔墨反复渲染这一惨剧,以此突显作为父亲的英祖国王的残忍与狠毒。将最具代表性的领袖人物,包括国王或君主进行丑化是西方对东方人实施东方化的最有效的手段,而挑选有东方背景的叙述者来承担此任无疑使这种东方化获得了最大的合法性。

《红王妃》不仅丑化英祖国王,作者还无中生有地杜撰出宫廷中的乱伦丑闻。不仅有英祖国王最疼爱的女儿崇夫人与同胞哥哥思悼世子之间的兄妹乱伦,还有亲姑侄间的跨代乱伦。为了获得权力,曾与亲哥哥乱伦的崇夫人竟然不顾礼义廉耻勾引立为王储的亲侄子崇玉而犯下乱伦的罪孽:“崇玉王储当时正进入青春期,他这个做姑妈的便毫无廉耻地挑逗他,勾引他。她的占有欲极强,我从崇玉口中得知,就连他读的书都会挑起她的妒火。”[5]105更令人匪夷所思的是,她还跟小王妃争风吃醋,诽谤小王妃没有生育能力。在一个笃信儒教的国家,至亲间的乱伦是无法令人容忍的,而且是绝少发生的,更何况在宫廷之中。德拉布尔如此丑化朝鲜的王子与公主,其实正是东方主义思想在作怪。

《红王妃》现已是享有很高声誉的一部作品,无论其艺术性和思想性都广获好评。但正是因为它有太多美丽的光环,人们很容易忽视它在阳

光下的阴影,这就需要我们不要被嘈杂的溢美之音所左右,而是深入挖掘,悉心倾听隐于文本深处的声音。因为作者在接受采访中一再举起文化相对主义的招牌,小说中数次申明奉行文化相对主义的立场,人们容易被蒙蔽,而且作者选用朝鲜王妃的亡灵进行自我东方化的手段具有很强的隐蔽性,因此对于像《红王妃》这样的作品中的西方文化霸权和东方主义人们更应该提高警惕,以防被表面的现象遮住双眼无法深层透视而难以发出批判之声。

참고문헌

- [1] Frankova, Milada. *The Red Queen: Margret Drabble's (Auto)Biographical Pastiche*. BrnoStudiesinEnglish, 2011(37).
- [2] 李良玉:「瑪格麗特·德拉布爾訪談錄」,朱雲譯,『當代外國文學』,2009年第3期。
- [3] 王桃花:「論『紅王妃』中的異文化書寫及其“理解”主題」,『當代外國文學』,2012年第1期。
- [4] 劉國清:「曼布克獎與當今英國曆史小說熱」,『外國文學動態』,2011年第6期。
- [5] 瑪格麗特·德拉布爾:『紅王妃』,楊榮鑫譯,昆明:雲南教育出版社,2007年。
- [6] Jays, David. *Seoul Destroying*. The Observer, August 22, 2004.
- [7] 程倩:「曆史還魂,時代回眸—析德拉布爾『紅王妃』的跨時空敘事」,『外國文學』,2010年第6期。
- [8] Eder, Richard. *The Red Queen: Babs Channels Lady Hyegyong*. New York Times. 10 Oct 2004. 『http://www.nytimes.com/2004/10/10/books/review/10EDERL.html?_r=1&oref=login』
- [9] 應雁:「新東方主義中的“真實”聲音—論哈金的作品」,『外國文學評論』,2004年第1期。
- [10] 『揭秘壬午禍變—思悼世子的死亡之謎』, <http://wenku.baidu.com/view/a5cd5fa7002768e9951e738de.html>。

Abstract

On Cultural Hegemony and Orientalism in *The Red Queen*

Liu, Guo-qing

Whether in terms of artistry or of thought the novel *The Red Queen* has won high praise. However, under the aura of praise in its depth there is implied cultural hegemony and orientalism which should not be neglected. The author has declared her position of cultural relativism on many different occasions and the novel shows such a stand many times. Readers may be easily blinded by such endeavors. Since the choice of the late Korean princess, Lady Hyegyong as the narrator to realize self-orientalizing, a strategy of new orientalism, is more deceptive, readers should be more alert to such works so that they will not lose critical voices.

【Key words】 *The Red Queen*, cultural hegemony, orientalism